

都市文化環境造成計劃의 接近方法

黃 琪 源*

目 次

I. 序	IV. 韓國의 都市文化
II. 文化	V. 文化의 成長을 위한 政策方向
III. 文化로서의 都市와 都市文化環境	VI. 都市文化環境 造成計劃

I. 序

近者에 와서 生活과 環境의 質에 대한 價値觀이 달라지면서 文化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都市環境을 “文化化”(enculturation)하고자 하는 “都市文化環境造成”이다. 그런데 이 노력은 方向에 따라서는 대단히 劃一的이고 一方的인 文化의 “供給”에 그치고, 일상의 都市生活과 괴리된 과시적이고 호화로운 文化施設의 “建設”에 치우칠 수가 있어 그 意義의 究明과 바람직한 接近方向의 定立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都市行政 내지 都市計劃에 의해 文化環境造成이 이루어지면서 公式化되어 실제 都市生活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 글은 文化라는 複合概念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種概念과 屬性, 그리고 都市라는 生活樣式과 生活環境이 가지고 있는 文化的 徵表를 밝히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文化의 成長을 위한 일반 政策方向을 제안하고, 都市文化環境을 조성하고자 하는 公共計劃의 意義, 對象領域, 計劃目標體系와 主要課題를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II. 文 化

1. 文化의 定義

文化라는 概念은 대단히 모호하면서도 매력적이고, 日常的이면서도 대단히 術學的이기도 하다. 이 概念의 定義는 수백가지가 있다고 하나 이것들을 정리하면 대개 2가지로 수렴된다.

그 하나는 人本主義的인 接近(humanistic approach)에 따른 것으로서 ‘人間의 完璧性’(human perfection)을 표상하는 心性의 狀況, 또는 社會 전체의 ‘知的 啓發’(intellectual

* 서울大 環境大學院 環境造景學科 助教授

development)에 관한 일반적인 狀態, 그리고 ‘藝術’(arts) 일반을 文化로 파악하는 概念이다. 또 하나는 人類學的 接近(anthropological approach)에 따른 것으로서 한 時代나 民族의 ‘삶의 方式 전체’ 내지 ‘삶의 樣式’을 文化로 보는 概念이다. 前者는 대단히 선별적인 관점에서 정의된 개념으로서 人間의 여러가지 活動중에서 일부분만을 文化로 보며, 그래서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萬有共通의 價値에 人間의 活動과 目標들의 여러가지 양상을 평가할 수 있고, 또 평가해야 한다는 태도가 바닥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후자는 人間生活的 모든 국면과 모든 社會的 遺産을 포괄하기 때문에 非選別的이며, 그래서 普遍的이고 價値中立的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二元的 概念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人間이 삶을 영위하면서 필요로 하는 보편적인 ‘表意體系’(signifying system)이라는 개념으로 수렴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藝術的 내지 知的 活動과 삶의 方式이라는 개념간에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文化現象을 운과짓거나 일반화하는 ‘內的 形成精神’(informing spirit)를 강조하는 태도가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다.

2. 文化의 特性

文化는 무엇보다도 選擇과 適應過程이라는 점에서 歷史的 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관점은 人類學的 입장에서 정의한 文化의 개념에서 분명하다. 즉 文化는 사람들이 어떻게 生活을 하여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지혜를 말하므로 ‘여러 사람의 生活方式’이며, 그 生活方式는 생활하는 모습이기도 하여, 어떤 社會의 전체적인 生活樣式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生活方式 내지 生活樣式은 衣食住를 포함한 生活的 구체적인 行爲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生活하는 設計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生活的 設計란 것은 주어진 條件과 環境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유리하고 효과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나이며, 이것에 따라 여러 가능한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으로써 社會生活, 宗教生活 등 生活的 모든 영역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文化는 하나의 특정한 文化를 가진 民族이나 社會가 주어진 環境條件 아래에서 試行錯誤의 경험을 거듭하면서 가장 유리하고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生活樣式을 선택한 것이므로, 文化라는 개념에는 歷史的 產物이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文化를 한 部族이나 民族에 한정시켰을 때 이것은 特定한 한 文化가 되고, 이것을 종합하여 人間 전체가 이룩한 삶의 지혜로서의 폭넓은 의미의 文化로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文化는 超個人的인 존재이다. 文化를 사람들의 生活樣式이고 삶의 지혜라고 했을 때 文化는 個人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 왜냐하면 文化의 表現인 行爲는 個人의 行爲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또 포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個人의 行爲라고 할지라도 個人의 集合體인 社會의 承認을 받은 行爲여야 한다. 그러므로 文化는 個人에 의해 표현되고 담당되지만 個人을 초월한 超個人的인 존재이고, 관찰이 가능한 人間

의 行爲뒤에 갖추어진 抽象的인 것이다.

이와 같은 文化의 歷史的, 超個人的 特性은 文化의 社會遺傳의 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文化는 社會가 공유하는 生活樣式이기 때문에 文化를 담당하는 주체인 個人은 文化를 社會生活을 통해서 學習하면서, 즉 社會的 遺傳(social heredity)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個人의 出生과 더불어 生理的 遺傳에 의해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文化가 社會的으로 遺傳된다는 것은 文化가 文化를 담당하는 個人들의 世代를 거듭하면서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전달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즉 文化는 傳達되는 特性을 가진 것이다. 이와 같은 文化의 傳達性은 社會的 立場에서 文化를 본 것이고, 이것을 個人의 立場에서 보면 學習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이 특성이 都市文化環境造成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3. 文化의 機能

먼저 社會的 集團에 의해 실현되는 生活樣式인 文化는 그 社會에 속해있는 個人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世界를 인식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 이런 점에서 個人은 文化의 產物이기도 하다. 이와 아울러 個人은 文化의 傳達性에 의해 성장하고 社會의 文化를 습득하게 되지만, 個人은 文化를 습득함과 동시에 文化를 변동시키고 文化를 이끌어가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個人이 文化로 부터 배우는 것은 衣食住와 같은 人間의 基本적 욕구를 위해 주어진 自然環境에 어떻게 適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環境에의 適應이란 衣食住를 위시한 모든 生産樣式과 生活樣式등을 포괄한다. 이 適應方式은 주어진 環境條件에 따라 달라지지만 基本적 인 것은 그 條件아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條件을 操作, 管理, 消費하여 最少限의 노력으로 最大限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文化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社會의 維持와 存續에 필요한 統制「메카니즘」으로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文化는 社會를 구성하는 個人의 行動을 規定하여 社會 전체의 秩序를 구성한다. 그 뿐 아니라 個人의 집단인 社會 전체를 조절하여 個人들의 여러 慾求를 끌고루 충족시키고 필연적으로 생기는 社會惡을 제거, 조절하면서 社會의 유지에 필요한 計劃을 수립하고 이것을 실행해 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文化는 社會의 存續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構成員, 즉 그 社會에서 새로 出生한 사람에게 그 社會의 生活樣式을 학습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構成員이 되도록 한다.

4. 文化要素와 文化複合

하나의 文化는 아무리 단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文化要素(culture element)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의 文化를 이루고 있는 文化要素들은 무질서하게 集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화된 상태를 이루도록 統合하는 原理인 文化複合(culture complex)이 존재한다.

文化要素는 대개 3分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는 人間과 自然(環境)과의 關係를 기준으로 하여 衣食住의 해결을 위해 自然을 操作하는 데에 필요한 方法, 技術, 道具 등이라는 文化要素가 있다. 둘째는 人間과 人間과의 關係, 즉 社會에 관련된 文化要素로서 모든 社會集團의 組織, 集團간의 關係 등을 포용한다. 셋째는 이 두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主觀的인 것으로서 知識, 感情, 價値, 宗教, 倫理 등에 의한 判斷과 行動들을 포괄하는 文化要素가 있다.

5. 文化의 類型

文化에는 行動이나 事物등과 같이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나타난 文化’, ‘表現된 文化’(explicit culture)가 있고, 여기에 대응하여 價値나 感情등과 같이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감추어진 文化’, ‘內在된 文化’(implicit culture)가 있다. 이 두 국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統合體로서의 文化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하나의 文化는 地域에 따라서 都市文化라든지 農村文化로 구분할 수도 있고, 年齡이나 社會階層에 따라서 青年文化, 成人文化 또는 識者文化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러한 文化類型을 일컬어 全體文化를 구성하는 下位文化(sub-culture) 또는 部分文化(part-culture)라고 한다. 그리고 下位 文化 중에는 완전한 獨立體를 이루지 못하고 全體文化나 다른 下位文化에 의존하고 있는 半文化(half culture)가 있으며, 外來文化의 受容과 變化에 따른 適應이 늦고 傳統社會의 文化가 많이 남아있는 民俗文化(folk culture)가 있다.

6. 文化의 變動과 移動

모든 文化는 固定不變한 것이 아니라 歷史 속에서, 즉 時間의 次元에서 變動하며, 地理 속에서, 즉 空間의 次元에서 移動한다.

文化變動은 그 文化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發明(invention)—이미 존재하는 事物이나 社會的 條件의 複合 또는 變更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物件이나 行爲를 만들어 내거나, 전에 관련이 없던 理念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理念을 창조해 내는 것—이나 發見(discovery)—이미 존재하던 事物과 理念이었으나 여태 認識되지 않았던 어떤 국면을 새로 깨닫게 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文化의 ‘외부’로부터 文化要素나 文化複合이 傳播(diffusion)되어와서 受容됨으로써 일어나기도 하고 環境의 變化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文化變動의 契機가 되는 發明, 發見, 傳播 등을 革新 또는 刷新(innovation)이라고 한다. 刷新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文化要素가 그 社會에 受容됨으로써 순조로운 文化變動이 일어난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文化要素라 할지라도 기존의 文化構造에 共通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기이한 事物, 이상한 習慣, 일탈된 行動이 된다. 또한 기존의 文化構造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갈등을 야기하여 기존 秩序는 상실된 채 새로운 秩序는 확립되지 못하는 아노미(anomie)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특히 外來文化

의 借用에 의해 文化가 변동할 때 物質文化, 技術, 合理的 知識등과 같이 ‘表現된 文化’ 나 쉽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발전하였지만, 社會組織, 宗教, 藝術, 道德 등과 같이 內在된 文化’는 쉽게 변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어질 때 이른바 ‘文化의 遲滯現象’(cultural lag)이 일어난다. 이러한 「아노미」나 遲滯現象이 심화되면 文化危機가 일어나게 되는데, 文化의 再統合에 의해 新·舊 文化의 調和를 도모하거나, 또는 再生運動에 의해 이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Ⅲ. 文化로서의 都市와 都市文化環境

1. 共通的이고 代表的인 文化인 都市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文化란 어느 社會가 共有하는 生活方式 내지 生活樣式으로서 生活하는 구체적인 行爲가 아니고 어떻게 生活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틀을 가리킨다. 이러한 文化는 어느 한 社會가 試行銷誤를 거듭하면서 주어진 環境條件에 적응하는 歷史的 過程인 동시에 그 產物이다.

따라서 都市라는 것은 人間이 여러가지 生活方式 내지 樣式 중에서 선택한 것이므로 文化의 한 類型인 것이다. 즉 人類가 수백만년 전에 이 地球위에 生物중의 한 種으로서 나타나서 原始時代의 狩獵·採取라는 經濟生活과 流浪이라는 社會生活로 구성된 文化를 거쳐 農耕이라는 經濟生活과 定着이라는 社會生活로 구성된 文化를 갖게 되면서 부터 都市라는 生活方式이 비롯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都市는 人類에게 共通的인 文化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現代에 와서는 全世界的인 産業化의 진행과 더불어 都市化가 일어남으로써 都市는 人類에게 代表的인 文化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都市文化는 定義上으로는 한 社會의 全體文化를 구성하는 下位文化 내지 部分文化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全體文化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支配的인 文化가 되었다.

2. 生活樣式으로서의 都市

都市의 고전적인 定義는 地理的으로 그 位置와 範域이 한정된 場所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머물어 살고 있는 ‘生活樣式’이기도 하고, 또 그 ‘場所’이기도 하다. 특히 이 場所는 주어진 自然環境을 人間이 文化化한 것이기 때문에 ‘生活環境’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에서 生活樣式으로서의 都市, 또는 都市에 특유한 生活樣式을 살펴보기로 하자.

都市는 거시적으로 보면 人類에게 共通的이고 一般的인 文化이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都市 內部에 다양한 生活樣式, 즉 文化가 共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都市가 존재하자면 定義上 우선 많은 사람이 모여사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체는 이 많은 사람들의 構成이 出身地, 教育, 財産, 宗教, 職業 등의 관점에서 대단히 다양한데 기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生活樣式은 때로는 都市人들의 價値觀, 態度, 그리고 行爲類型에 있어

지나치게 合理的이고 目的指向的이라서 非人間的이고 機械的이라는 부정적인 국면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로 다른 生活樣式을 가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면서 同時的, 二次的 接觸단으로서 人間對 人間의 관계를 형성, 영위해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편 다양한 生活樣式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 刷新의 原動力을 제공하고 素地를 마련해 주는 역할도 한다. 都市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되 특히 情報處理能力이 뛰어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계층의 사람이 많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社會組織과 環境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옛부터 都市는 刷新의 發生, 授受, 供給, 處理源이었고, 文化變動의 媒體로서의 역할을 하여 왔다. 특히 都市의 人口增加가 대부분 社會的 要因, 즉 다른 地域으로부터의 移住에 의해 이루어지고, 全國이 1日生活圈化되어가는 現代韓國의 都市體系에서는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이 더 커져가고 있다.

3. 生活環境으로서의 都市

都市는 우리 人間이 선택한 삶의 樣式이고, 그 삶을 위한 環境이기도 하다. 이 生活環境은 人間이 주어진 自然環境의 여러 條件들에 대해서 때로는 順應하기도 하고, 때로는 制御하면서 영위하고자 하는 生活樣式에 적합하도록 바꾸고 가꾼 人工環境이다.

이러한 生活環境은 自然生態系의 物質과 에너지의 循環體系에 人間의 生活을 위해 필요한 人工的 裝置—土地의 利用, 交通, 供給處理 등을 위한 각종 施設—를 덧붙이고 自然의 裝置를 대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生活環境은 人工性이 가장 큰 특징이나, 이 人工性은 아직까지는 自然에 있는 相應要素를 100% 대체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완전한 의미에서의 人工性이라고는 단정짓기 어렵다.

그리고 文化라는 것이 歷史性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듯이 部分文化 내지 文化要素인 都市의 生活環境 역시 1回用이 아니고 하루 아침에 모두 새로운 것으로 개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時間의 흐름에 따라 누적되면서 新舊의 요소가 중첩되는 都市의 生活環境은 낱알의 요소가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얽혀서 복합적으로, 집단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生活環境은 文化가 超個人的이듯 ‘모듬삶’(共同生活)을 위한 公共性에 기초를 두고 있기도 하다.

4. 生活樣式과 生活環境

都市는 마치 ‘담을 짓’과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물이나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듯 人間의 삶도 그릇과 같은 環境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릇에 무언가 담을 것이 없다면 그릇으로서의 存在意義가 없을 것이다. 또 담을 것이 양과 질에 따라 알맞은 그릇이 따로 있고, 그릇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알맞은 “담을 짓”이 따로 있듯이 生活樣式과 生活環境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生活樣式과 生活環境은 都市라는 文化類型 내지 文化複合을 구성하는 必須要素로서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같거나 비슷한 自然環境條件일지라도 生活樣式이라는 국면의 文化에 따라서는 生活環境이라는 국면의 都市의 모습이 반드시 같거나 비슷하지는 않을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같거나 비슷한 生活環境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영위되는 生活樣式이 반드시 같거나 비슷하지는 않은 것이다.

5. 都市文化環境의 定義

文化環境은 ‘文化’와 ‘環境’이라는 대단히 多義의인 概念이 복합된 概念이라서 한층 더 애매하나, 지금까지 이 글에서 밝혀본 定義에 비추어 본다면 크게 2가지의 概念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는 ‘文化環境’(cultural environment)을 ‘文化화된 環境’(cultured or cultivated environment)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文化’를 위한 環境(environment for culture)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文化화된 環境이라고 보는 경우는 文化와 環境을 人類學的 觀點에서 해석하는 경우이다. 즉 ‘文化’는 어떤 人間社會 전체의 生活樣式의 總和로서 보편적이고 좋고 나쁘다는 구별이 없이 價値中立의이다. 그리고 이 경우의 ‘環境’은 人間生存의 모든 條件이자 社會 전체의 日常의인 現實生活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서, 자연발생적으로 천천히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文化環境은 文化化(enculturation)—즉 人間이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行動樣式을 형성 습득하는 과정—된 環境으로서, 보통의 사람이 日常生活을 영위하기 위해 만들고 가꾼 평범한 環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定義를 기준으로 하면 文化環境은 人間의 生活環境을 구성하는 모든 要素와, 이들 要素가 모여서 만든 復合體를 포함한다. 그래서 都市의 文化環境은 物的 環境의 모든 것을 다 망라한 都市環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文化環境을 文化를 위한 環境으로 보는 경우는 文化와 環境을 人本主義的 觀點에서 파악하는 경우이다. 즉 이 때의 文化는 人間의 完璧性, 知的 發達, 藝術 전반에 국한된 狹義의 개념으로서, 이와 같은 文化에 대응하는 非文化, 反文化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環境’은 이러한 高級의 部分文化를 收容하는 藝術的인 그릇—그 자체가 文化的인—이나 展示하는 背景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文化環境은 日常의 環境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教養人이 주역이 되어 펼치는 藝術的·知的 活動이 주가 되는 特定文化를 위한 非凡한 環境에 국한되는 개념이 된다. 예를 들면 音樂堂, 博物館, 美術館, 圖書館 같은 文化施設이 이런 文化環境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都市의 文化環境은 이 二元的 定義를 포용하여야 하지만, 文化環境을 造成한다는 政策의 實踐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文化화된 環境”이라는 개념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都市는 평범한 사람들의 日常生活樣式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普通環境이 그 文化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것들으로써 그 文化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文化를 위한 環境’이라는 국면을 완전하게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국면의 環境은 文化變動과 文化發展의 촉발매체인 革新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 파급효과에 의해 普通環境의 質을 높이는 典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都市文化環境의 質的 要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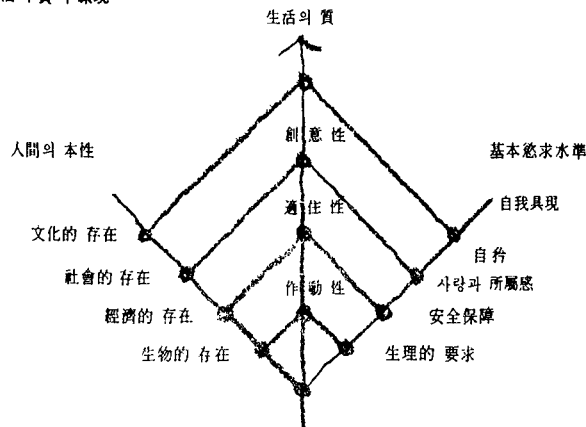
實踐의인 관점에서 보면 都市文化環境은 質이 높은 生活을 위한 質이 높은 環境이다. 生活과 環境의 質은 다음과 같은 人間 本性이 갖고 있는 여러 局面과 人間의 基本 慾求의 關係라는 概念에서 그 水準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人間의 本性은 가장 기본적인 生命 유지와 種의 번식이라는 차원에서 본 生物的 存在 (biological being), 自然環境으로 부터 필요한 資源을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본 經濟的 存在(economic being), 다른 人間과 어울려 살아가는 차원에서 본 社會的 存在 (sociological being), 그리고 이 모든 存在의 總和인 文化的 存在(cultural being)이라는 4 가지 局面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人間의 基本 慾求是 心理學者 A.H. Maslow에 의하면 生存과 직결되는 生理的 慾求 (physiological needs), 먹이 획득과 신체 보호로 나타나는 安全保障 慾求(safety & security needs), 人間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所屬感 慾求(love & belongingness needs), 그리고 自肯 慾求(self-esteem needs)가 있으며, 이런 階層的 慾求의 최상층에 각 個人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어하는 自我具現慾求(self-fulfillment needs)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人間의 本性和 基本慾求是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對應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관계는 個人에 있어서 뿐 아니라 社會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元초적으로는 生物的 存在로서의 生存을 위한 生理的 慾求의 충족을 위한 生活과 環境의 質이 요구되지만, 궁극적으로는 文化的 存在로서의 自我具現慾求의 충족을 보장하는 生活과 環境의 質이 요구되는 것이다.

生活의 質과 環境



이와 같은 關係를 가진 生活와 環境의 質的 水準은 다음의 3단계로 구성된다. 가장 낮은 수준이자 최저한 확보되어야 할 수준은 作動性(workability)으로서, 個人的 生計와 都市「시스템」을 그럭저럭 유지하는 수준의 質이다. 주로 生理的 慾求와 安全保障 慾求의 충족에 급급하므로 環境의 수준은 位宅의 量的 供給이나 都市基盤施設의 최소공급에 머무르게 된다.

중간의 수준은 適住性(livability)이 만족되는 수준인 바, 生存의 위협에서는 벗어났으나 아직 經濟的 存在와 社會的 存在의 유지에 머무르고 있게 된다. 都市의 經濟基盤 조성, 都市基盤施設의 확충, 文化施設의 최소 供給이 주된 척도가 된다.

최고의 수준은 創意性(creativity)의 수준으로서 社會構成員으로 하여금 각자의 潛在力量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自我具現을 실현하고 生活環境의 主人意識을 갖게 되는 수준이다.

都市環境에 있어 作動性和 適住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궁극적 목표는 創意성이 보장되는 環境을 형성하는 것이며, 文化環境은 바로 이러한 수준의 環境이고, 文化環境을 조성한다든가 都市環境을 文化化한다함은 이러한 수준의 環境을 만들고 가꾸는 일이다.

IV. 韓國의 都市文化

1. 近世史 속에서 본 韓國文化와 都市

● 20세기 이전

韓國은 20세기 초에 日本에 강제 합병되기 이전에는 4,000년 이상 單一民族文化를 누려온 獨立國家이었다. 政治는 君主體制이었고 經濟는 産業化 以前의 農業經濟이었으며, 社會는 士農工商의 身分制가 엄격하였었다. 이 시대의 環境은 首都와 소수의 政治·軍事據點인 地方都邑을 제외하고는 영세한 農漁村과 거친 自然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바탕위에 자라난 文化는 身分別로 그 내용과 참여자가 극히 제한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어 王族·貴族계층을 중심으로 한 高級文化와 常民·賤民을 중심으로 한 民俗文化로 나누어졌었다. 文化의 中心이 되는 곳은 반드시 宮庭이나 首都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다. 文化의 主役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곳이 文化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별로 발달하지 못한 地方小都邑보다는 地方兩班이나 豪族들이 경영하던 農莊이나 別墅, 地方學者나 儒林의 근거인 書院, 鄉校, 精舍 등이 高級文化의 中心 역할을 하였다. 下級文化도 農漁村과 賤民들의 격리지인 部曲등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러나 高級文化에 있어서는 文學 이외에 藝術은 그다지 대접을 받지 못했으며, 下級文化는 身分制 때문에 高級文化와 乖離된 채 큰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 1900~1950년대末

이 시기는 韓國近代史의 激動期로서 列強의 각축에 이은 植民地化, 두 차례의 世界大戰,

光復, 國土의 分斷과 6.25事變 및 戰災復舊 등이 일어났다. 傳統社會의 文化는 기존 文化 主役의 沒落과 代替, 韓國文化의 抹殺·同化政策 등에 의해 쇠퇴, 소멸되었다. 日政下에서는 日本文化, 日本을 거쳐 들어온 西歐文化, 宣教師 등이 전해주는 西歐文化가 韓國人이 주체가 되어 自生的, 漸進的, 能動的으로 '受容'한 것이 아니라, 外勢가 주체가 되어 意圖的, 急進的, 被動的으로 '接變'(acculturation)되었다. 그리고 光復 이후에도 日本文化의 殘滓가 남아 있었던 데다가 이른바 GI 文化의 무분별한 導入, 戰爭에 따른 文化停滯 등이 작용하여 國籍未詳의 文化가 형성되었다.

한편 都市를 보면 주로 韓半島를 植民地로서 統治하고 收奪하기 위한 政策에 따라서 都市開發이 이루어졌다. 傳統社會의 都邑과 村落 위에 日本과, 日本을 거친 西歐의 都市計劃 概念과 技法이 증첩되면서 都市의 構造와 機能과 景觀이 왜곡, 변형되었다. 게다가 6.25事變 중에 철저히 파괴된 데다가 戰災 復舊를 서두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日本風 都市가 상당히 復原되면서, 西歐風 都市가 새로 開發되었고, 그나마 남아 있었던 고유한 都市 環境의 흔적이 대폭 지워졌었다.

• 1960~1970年代

이 시기는 韓國의 國家發展과 國土開發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때, 國家發展의 至上目標은 '成長'이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基本戰略은 特定部門과 特定地域의 先導效果를 노리는 "不均衡成長戰略"이었다. 이때 先導部門은 "經濟"이었고 經濟部門 중에는 輸出指向의 重化學工業分野이었다. 그리고 先導地域은 工業化를 위해서 相對的으로 立地優位가 있는 '都市', 都市중에서도 "大都市", 大都市 중에서도 '首都'이었다. 이와 같은 不均衡成長戰略의 결과로서 政治·社會部門의 發展은, 특히 1970년대의 維新體制 아래에서, 극도로 留保되었고, 文化部門의 發展 역시 위축, 왜곡되었다.

급격한 工業化 및 都市化에 따른 代價로서 環境의 質的 低下가 大都市로부터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大都市, 특히 首都圈의 過大·過密과 地方中小都市의 落後와 衰退가 동시에 일어났다. 더구나 人口와 經濟의 大都市偏向은 地方都市와 서울의 文化隔差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특기해야 할 사실이다.

2. 韓國地方都市의 文化

현대 韓國의 文化現象은 空間的 複合性에서 오는 혼란, 즉 外來文化와 固有文化의 混在에서 오는 二重構造와 時間的 重復性에서 오는 충격, 즉 傳統과 現代와 未來의 價值觀과 規範이 서로 엇갈리는 環境 속에서의 文化的 衝擊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韓國都市, 특히 地方都市의 文化現象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 社會의 文化現象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文化의 適合性(relevancy), 正體性(identity), 그리고 統合性(integration)이라는 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먼저 文化의 適合性—文化類型과 社會構造와의 상호 適合 여부—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都市의 生活樣式, 즉 都市文化가 定立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즉 1985년 현재의 都市化率이 70%이고, 2000年代에는 80% 이상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行政區域上的의 市邑 뿐 아니라 전 國土의 대부분에 都市의 生活樣式이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韓國社會의 現實과 未來에 적합한 都市生活樣式을 형성하지 못한 채 그리고 主流를 이루는 生活樣式을 찾지 못한 채 臨機應變으로 生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바닥에는 지난 100여년간의 激動期 속에서 外來文化가 무비판적으로, 때로는 강제적으로 移植되었던 사실이 깔려 있다. 더구나 현대에는 전 세계가 地球村의 규모로 축소됨으로써 각종 外來文化가 受容態勢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韓國社會에 쇄도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한편 일종의 文化復興—우세한 外來文化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벌이는 再生의 노력—으로서 傳統文化의 復原과 保存, 偉人先烈的 顯揚, 自然保護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文化의 正體性, 즉 ‘環境과 歷史 속에서 축적된 生活樣式的 總體’로서의 文化的 傳統을 살려서 현재의 環境에서 適合한 傳統文化의 類型을 창조적으로 再調整하고 開發해 나가자는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文化樣式으로서 현재의 社會環境 속에서도 우리의 行爲樣式이 되고 있는 文化傳統(cultural tradition)을 계승, 발전하자는 입장보다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傳統社會에 속한 傳統文化(traditional culture)에 대한 상당히 感傷의인 回顧와 復歸를 피하는 입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文化的 正體性의 危機는 社會構成員이 植民地化, 事大主義의 外來文化의 崇上등에 의해 文化的 植民地化함으로써 傳統社會의 붕괴와 이와 따른 文化的 傳統의 연속성이 깨어지는 데에서 비롯한다. 유감스럽게도 韓國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文化의 適合성과 正體性의 문제는 결국 文化의 統合性의 문제로 귀결된다. 文化의 統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한 文化를 구성하는 文化要素들 상호간에 서로 一貫性이 없음으로 해서 文化의 혼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文化要素들이 잘 統合되어 있지 않을 경우 社會構成員들은 다른 사람들의 行爲樣式을 적절하기 어려워 서로의 期待가 좌절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같은 社會 속에서 價値類型과 行爲樣式이 ‘狀況’에 따라, ‘集團’에 따라, 또는 ‘對象’에 따라 달라지고 文化類型의 一貫性, 豫測性이 결여되면 社會 秩序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韓國의 경우 物質文化 위주의 表現된 文化와 精神文化 분야의 內在된 文化의 발전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知識層, 富裕層 주도의 高級文化와, 中產層 주도의 大衆文化가 각각 未定立되어 있으면서 서로간에 分離, 對立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뿐 아니라 都市-農村間, 世代間의 文化隔差와 文化類型간의 文化遲滯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適合性, 正體性, 統合性이라는 관점에서 본 文化的 危機는 都·農의 구분이 흐려지고 全國적으로 都市化가 확산되고 一日生活圈化하여 따라 部分文化이었던 都市文化가 全體文化로서의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危機意識은 社會構造로 보아서 農村보다는 都市에서 좀더 날카롭게 드러난다. 특히 地方의 中小都市는 모든 分野의 서울集中化現象의 결과로서 '서울文化'를 典範으로 한 全國的 文化劃一化現象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서울文化는 外來文化를 제대로 受容하지 못한 채 그 자체가 많은 文化的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이를 무비판적으로 모방하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이식될 때 생겨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더구나 全州, 公州, 慶州 등과 같이 傳統社會와 그 시대의 文化가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는 中小都市의 경우는 全國次元 뿐 아니고 地方都市 次元에서 본 文化的 適合性, 正體性 및 統合性의 갈등도 더불어 겪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V. 文化的 成長을 위한 政策方向

1. 文化的 成長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文化는 固定不變한 것이 아니라 時間的 次元에서 變動을 하고 空間的 次元에서 移動을 하며, 이 文化變動의 계기는 刷新이라고 한다. 刷新은 이미 그 文化에 있어왔던 理念이나 事物 등이 새로운 體制로 전환하는 현상으로서, 物質的 次元 뿐 아니라 精神的 次元에까지 새로운 것이 일어날 때 완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어떤 文化體系 속에 한가지 刷新이 일어나면 다른 文化要素에도 영향을 미쳐서 부수적인 刷新이 일어나게 되며, 이와 같은 連鎖作用의 결과로서 文化가 質的으로 변화하고, 量的으로 증가하는 '文化的 成長'(cultural growth)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成長된 文化는 그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계속 전달됨으로써 비로소 안정된 文化로서 정착하여,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런데 文化的 成長이 이루어지자면 刷新에 의해 발생한 새로운 文化要素, 또는 文化複合이 신속하게, 큰 마찰이 없이 社會的으로 受容되어야 함을 前提로 하고 있다.

그리고 文化的 原初的 定義, 즉 自然(*natura*)을 耕作(*cultura*)하여, 즉 人間의 努力을 더하여 價値를 증대시키는 일이라는 점과, 또 政策이라는 것은 社會의 價値體系를 바탕으로 하여 資源을 배분하는 일이라는 점을 연계시켜보면 都市文化環境造成計劃의 母體가 되는 文化成長政策의 기본 方向을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2. 文化的 育성과 形成

한 社會의 文化가 成長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政策方向이 있을 수 있다.

첫째, 方向은 文化的 成長을 政府에서 적극적으로 간여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수준에까지 이끌어올리느냐, 또는 民間에서 自生的, 自發的으로 文化的 刷新과 이에 따른

成長을 이끌어나가도록 政府는 소극적으로 助長하느냐라는 政策의 선택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 두 政策중의 선택에 있어 先決事項으로서 文化라는 것이 과연 他力에 의해 ‘造成’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절로 ‘形成’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이슈」를 구명하기 위해서 다시 文化의 概念을 되살려 보기로 하자. 文化는 한 社會가 ‘선택’하고 지키기로 ‘약속’한 生活樣式이다. 그러므로 한 文化가 지속성을 가지자면 그 生活樣式的 선택과 약속에 있어 準據가 되는 價値體系와 또 그 方法내지 節次에 있어 그 社會構成員의 일반적인 意見總和(consensus)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이와 같이 선택되고 약속된 文化가 社會構成員 개 개인의 行爲樣式을 규정함으로써 社會 전체의 ‘秩序’를 구성하고 동시에 個個人的 集合인 社會 전체를 조절하여 個個人的 慾求를 끌고루 충족시키면서 社會를 유지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만큼 더욱더 그러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文化의 成長의 主役은 政府가 아닌 市民 個個人과 個人的 集合인 社會이며, 文化 成長의 주된 내용은 社會公共의 바람직한 秩序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한 文化를 유지하는 社會의 政治的 구현이 國家이고 國家가 政府라는 조직을 통해서 행하는 行政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취하고자하는 것이 바로 秩序의 유지이다. 그런만큼 秩序 유지와 새로운 秩序의 受容이라고 할 수 있는 文化의 成長에 있어 政府와 個人的 역할은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政府의 역할은 이른바 ‘秩序行政’을 통해서 그 社會를 구성하는 公衆이 通念上 受容할 수 있는 行爲와 思考樣式的 規範을 民主的 方法과 節次에 의해 선택,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個人과 社會의 역할은 文化 維持와 成長의 主役으로서 이와 같은 規範의 선택과정에 있어 적극 참여하여 政府가 혹시 저지를 수 있는 獨善과 橫暴를 견제하는 것이고, 自己 個人 뿐 아니라 社會公衆 전부가 그 선택한 바를 지키려는 약속이 흐뜨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文化는 生活樣式이면서 또 人間의 完璧성과 優越성과 관련된 知的·藝術的 活動, 過程, 結果이기도 하다. 知的 국면의 文化는 人間으로 하여금 客觀的으로 認識하고 判斷할 수 있는 悟性的 能力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이런 文化를 통해서 環境과 다른 人間의 實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適應할 수 있는 知識과 技術의 깊이와 넓이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藝術的 局面의 文化는 人間의 삶의 本質과 정수를 숙련되고 우아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感性的 能力에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人間이 本來的으로 가지고 있는 表現慾求를 충족시키는 것이니만큼 빛을 설명하고, 빛에 의미를 부여하며, 나아가서 자신의 存在價値를 확인하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다.

藝術을 表現行爲라고 할 때 이 行爲는 모든 人間과 社會에게 보편적인 것이지만, 그 表現에 있어 形式이 있어야 하며, 그 內容에 있어 價値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社會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社會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런 뜻의 文化는 단순히 삶을 裝飾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또 우리가 사는 삶과 바람직하게 살고자 하는 삶과 不可分の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삶의 樣式으로서의 文化 뿐 아니라 知的·藝術的 活動으로서의 文化를 成長시킴에 있어서는 政府가 그 內容과 形式에 대하여 일일이 간섭하고 지도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社會 내부에서 저절로 깨우쳐서 자랄 수 있는 外的인 手段과 要件이 갖추게끔 助長하고 支援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이 自明해진다.

3. 삶의 內容과 삶을 위한 그릇

이와 같이 文化成長의 政策은 文化가 저절로, 올바르게 커지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助長, 支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볼 때, 이 방향을 좀더 정교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文化의 또다른 두 局面인 生活 '樣式'으로서의 文化와 生活 '環境'으로서의 文化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주력해야 하는가, 또는 兩者를 고루 成長시켜야 하는가라는 「이슈」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이슈」는 비교적 분명하다. 왜냐하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文化는 樣式과 環境의 두 局面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文化의 遲滯現象에서 오는 여러가지 폐해를 줄일 수 있고, 균형잡힌 成長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삶의 내용이 좋으면 삶을 위한 그릇인 環境이 粗惡해도 좋다는가, 또는 삶의 내용이 좋으면 環境이 따라서 좋아질 수 있다는가 하는 無關論, 내지 決定論과 같은 극단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서 環境이 좋으면 삶의 내용이 보잘것 없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가, 또는 環境이 좋으면 삶의 내용이 따라서 좋아질 수 있다는가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삶의 내용이 좋으면 이에 걸맞게 그 환경도 좋아야 하고, 역으로 환경이 좋으면 이에 맞추어 삶의 내용도 좋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삶의 내용과 環境은 한 쪽이 좋을 때 다른 한쪽도 좋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질 뿐이라는 점을 확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文化成長政策은 兩者가 동시에 골고루 자라게 하면서 서로 相乘作用에 의해 成果가 빨리 나타나도록 해야함이 確연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政策을 실천함에 있어서 한정된 資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기준에서 본다면, 生活環境으로서의 文化的 局面을 먼저 개선, 확충함으로써 올바른 生活樣式이 자라고, 자리잡을 수 있는 '環境的' 要件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表現된 文化'로서의 특성이 강한 生活環境이 '內在된 文化'로서의 특성이 강한 生活樣式보다 成長시키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4. 環境의 文化化와 文化의 環境化

이처럼 文化成長의 政策이 生活環境의 改善과 擴充을 통해서 전반적인 文化가 저절로, 올바르게 자라도록 助長·支援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세번째 方向은 앞에서 定義한 바 '文

文化化된 環境' 과 '文化를 위한 環境' 중에서 어느 쪽에 주력하느냐, 또는 兩者 모두를 成長시킬 수 있느냐라는 선택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먼저 文化化된 環境, 즉 보통사람의 일상생활을 위한 평범한 環境은 '文化의 주역인 보통사람들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볼 때 당연히 주된 政策對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理論上으로는 타당하나 實踐性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광범하고 모호한 대상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文化化된 環境은 文化成長政策의 궁극적인 目標일 수는 있어도 효율적인 手段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같은 논리로서 文化를 위한 環境은 文化成長政策의 효율적인 手段일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目標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점도 분명해진다.

따라서 文化成長의 基本戰略으로서 먼저 '文化를 위한 環境'을 단기적 중점적으로 개선, 확충함으로써 그 波及效果에 의해 장기적, 포괄적으로 都市의 '文化化된 環境'의 質이 개선되고 量이 증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戰略에서 경계하여야 할 점은 '文化를 위한 環境'에 주력한다고 해서 '文化의 環境化'를 시도해서는 안되고 '環境의 文化化'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 都市文化環境을 고양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지만, 그 의도가 다름으로 해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즉 文化의 環境化는 文化와 都市를 서로 별개의 현상으로 보아서 文化라고 오해되는 특별한 活動樣式과 그 결과물을 都市環境 속에 영입하고, 평범한 都市環境은 이를 과시하기 위한 背景으로 만들어버리는 접근방법이다. 이 결과로서 일상의 生活과 괴리된 과시적이고 호화로운 殿堂, 「센타」 등이 무리하게 들어서든가, 都市環境의 外觀만 치장하든가하는 유감스러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로 環境의 文化化, 즉 生活環境의 質을 개선하고 量을 확충하여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環境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이 타당함이 자명해진다.

VI. 都市文化環境造成計劃

1. 定義와 性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都市文化環境造成計劃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은 都市文化環境計劃이라는 생소한 都市行政課題가 무엇을 하고자하는 것인가에 대한 定義를 내리고, 그 性格을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이 計劃은 都市行政業務중에서 給付 行政의 국면과 環境整序行政의 국면이 합해진 福利行政業務인바, 이를 구현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새로 고안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都市環境計劃이다. 計劃의 主對象領域은 都市文化중에서 都市生活 '環境'이며, 이중에서 公共성이 강하고 刷新의 波及效果가 큰 環境要素를 保存, 整備하고, 관련 計劃과 事業을 調整하며,

새로운 環境을 造成하는 것을 計劃의 主要內容으로 하게 된다.

이 計劃의 궁극적인 목적은 公共部門이 선도하여 都市의 주요한 文化環境의 質을 개선하고 量을 확충함으로써 民門部門의 자생적 環境改善 努力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都市전체의 生活環境이 개선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都市民의 生活樣式으로 본 文化가 성장토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都市 전체의 文化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計劃의 실천과 정도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2. 文化行政手段인 計劃

오늘날의 都市行政은 社會가 변동하고, 文化가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하여 새로운 行政業務를 창출, 대처해나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都市文化環境造成計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로이 대두된 생소한 行政業務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國家는 과거처럼 대외적으로 外交·國防을 통하여 國家存立을 유지하고, 대내적으로는 警察·租稅를 통하여 秩序와 財源을 확보함을 주기능으로 하는 소극적인 中立者·傍觀者의 입장을 탈피하였다. 그래서 國民大衆의 積極的 福利, 즉 人間다운 生活과 社會正義를 증진하고 國民經濟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國民生活의 經濟的·社會的·文化的 領域에 개입하고 장래를 지향하여 바람직한 社會秩序를 형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福利行政”이라는 개념으로서 전개하고 있다.

都市文化環境造成은 이와 같은 福利行政 중에서 文化와 관련된 公共施設의 供給과 文化的 保護를 주업무로 하는 ‘給付行政’과, 生活環境을 일정한 방향으로 保全·整備, 改善하고 形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國民의 福利向上을 도모함을 주업무로 하는 ‘環境整序行政’의 두 국면이 종합된 새로운 行政業務이다. 그리고 이 업무는 특히 環境整序行政의 특성상 長期的이고 綜合的이어야 하기 때문에 計劃行政으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都市文化環境을 조성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政策指針으로서 ‘計劃’이 필요한 것이다.

3. 計劃의 主對象 領域

이 計劃이 다루게 되는 對象은 먼저 都市文化를 구성하는 두 국면인 生活樣式과 生活環境 중에서 특히 生活環境으로서의 文化에 치중하게 된다. 이점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文化成長政策에서 兩者가 골고루 성장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計劃이라는 實現手段의 속성으로 볼 때 無形的인 生活樣式은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計劃의 主對象이 都市의 生活環境이라고 했을 때 都市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環境要素가 포함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부딪치게 된다. 이점 역시 앞에서 政策方向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文化成長의 기본전략이 먼저 ‘文化를 위한 環境’을 단기적, 중점적으로 개선, 확충함으로써 그 파급효과에 의해 장기적, 포괄적으로 都市의 ‘文化화된 環境’이 개선, 확충되도록 함이 효과적이라고 구명한 바 있어 그 대답은 自明하다고 하겠다.

都市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環境要素중에서 計劃의 戰略的 主對象이 될 주요 “文化를 위한 環境要素”를 열거하면, 都市의 自然環境, 公共場所와 施設, 歷史景觀, 그리고 公共藝術을 들 수 있다.

4. 計劃의 目標體系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都市文化環境의 궁극적인 質的 수준은 社會構成員, 즉 市民들로 하여금 각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自我具現을 실현하고 生活環境의 主人意識을 갖게 되는 수준인 創意性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로 이 創意性의 확보가 都市文化環境造成計劃의 궁극적인 理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추상적이고 난해한 理念을 좀더 실천적인 目標로 풀어보기로 하자.

첫째, 文化基盤의 健實性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다. ‘건강한 어머니가 건강한 아기를 낳고, 깨끗하고 비옥한 흙에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듯이 創意性을 확보한 文化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基盤을 먼저 건강하게 조성해야 한다.

둘째, 都市環境을 人間化하는 것이다. 현대 都市에서 人間은 다른 人間, 環境, 그리고 극단적으로 自我로부터 단절되고 疎外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疎外에 의해 市民들이 사랑과 귀속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나아가서는 自我具現의 원동력을 소진하지 않도록 함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都市環境을 豊饒化하는 것이다. 이는 都市環境要素들이 기본성능의 발휘에 머물러서 作動性과 適住性만 만족시키는 수준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고, 社會構成員의 各一化와 社會合體의 劃一化로 가는 極端化를 방지하여 疎外現象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環境이 제시하는 의미가 多樣하고 구조가 複合的이라서 個人의 創意性이 발휘되고, 環境에서 都市라는 生活樣式의 意味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都市環境의 地域化를 추구하는 것이다. 都市가 人間에게 보편적인 文化라고 해서 모든 都市가 꼭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꼭 같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都市라는 文化가 歷史的 過程인 동시에 그 產物이라는 사실은 그 都市에 살아온 사람들이 주어진 環境條件에 오랫동안 適應해온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 목표는 앞에서 살펴본 韓國都市文化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5. 計劃의 主要 課題

이와 같은 文化基盤의 健實化, 都市環境의 人間化, 都市環境의 豊饒化, 都市環境의 地域化라는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主要 課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自然環境의 回復을 들고자 한다. 都市는 人間이 自然環境에 적응하기 위해, 또는 自然環境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人工環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때 人工環境이라함은 都市를 구성하는 모든 環境要素가 人工物로 대체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自然環境을 基盤으로, 母體로 한 채 일부가 대체되었을 뿐이라는 뜻이다.

현대에 있어 自然環境은 都市로부터 멀어져가고, 또 都市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都市 내에 있는 綠地와 內園은 축소되고 왜곡된 人工自然이든가 自然의 잔해로 남아있을 뿐이다. 都市 속에서 自然環境은 感傷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人間과 生物의 生存의 근간이 되는 生態系라는 개념에 의해 보다 合理的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 秩序에 따라서 건강한 都市生態系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文化成長의 基盤을 健實化하고, 그 바탕 위에서 다른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都市의 公共場所와 施設을 개선하고 확충하는 일이다. 都市는 사람이 모여사는 편리함 때문에 생겨난 文化이다. 都市環境 중에서 특히 人間과 人間이 서로 만나고 무언가를 주고 받는 公共場所와 施設은 단순한 功利의 차원을 넘어서서 人間 疎外の 극복과 創意的 環境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質이 개선되고, 量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특히 市民 대부분이 매일 이용하고 시간을 보내는 街路와 廣場 등에서 강조되어야 할 과제이다.

세째는 公共藝術을 정착시키는 일이다. 앞에서 藝術的 活動으로서의 文化가 가지고 있는 意義를 밝힌 바 있거니와, 이 藝術은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創作되고 享受되는 高級文化가 아니고, 人間 누구에게나 있는 本然의 表現慾求를 반영하는 보통의 文化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都市에서 人間과 떨어진 藝術, 大衆으로부터 떠나간 藝術을 公共藝術의 형태로 되살림으로써 生活와 環境에 대한 感受性과 畏敬意識을 일깨우고 創意的 環境의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는 歷史景觀을 보존하는 일이다. 文化가 環境에 대한 人間の 適應이고, 그것이 표현된 것이 文化景觀이다. 文化景觀이 文化的 空間的 記錄이라면 歷史景觀은 文化的 時間的 記錄이라는 점에서 文化景觀과 歷史景觀은 不可分の 관계에 있다. 歷史景觀은 그 都市에 있어 간직되고 전승되는 고유한 文化的 價値와 特性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媒體인 것이다. 이러한 의의가 있는 歷史景觀의 保存은 이미 文化的 適合性이 사라진 “傳統社會의 文化” 중에서 계속 간직해야 할 것을 保護하는 일 뿐 아니라, 현대 文化的 成長과 文化的 正體性 강화에 밑거름이 되는 “文化的 傳統”을 되살리고 키우는 일이다.

VII. 結

都市環境을 文化化함을 主目的으로 하는 都市文化環境造成計劃은 현재로서는 都市行政 내지 都市計劃의 公式節次上的 制度化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計劃에 執行力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長期的으로는 法制上的 裝置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필요한 사항은 “供給”을 맡은 本政府의 입장에서 都市文化的 成長을 都市行政의 주요한 公式業務로서 受容하는 것이고, “需要”를 창출하고 “利用”을 하는 市民의 입장에서 都市文化가 日常生活와 괴리된 자신과 관계없는 “그 무엇”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즉 都市文化는 만 것이 아닌 우리 都市의 日常生活이고, 都市文化環境은 만 것이 아닌 이러한 日常生活이 영위되는 普通環境이라는 생각이 市政府나 市民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1. 韓 國

- 康賢斗(編), 「大衆文化의 理論」(民音社)
- 金道昶 (1985), 「新稿 一般行政法論(下)」(靑雲社)
- 레이먼드 윌리엄즈 (1982), 「文化社會學」, 설준규·송승철(譯)(까치, 1984).
- 루스 베네딕트 (1958), 「문화의 패턴」, 김열규(譯)(까치, 1980)
- 박기성 (1983), 「문화커뮤니케이션과 대중문화」(평민사)
- 이광규 (1980), 「文化人類學概論」(一潮閣)
- 임희섭 (1984),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현암사)
- 全州市 (1986), 「全州市都市文化環境造成基本計劃」

2. 歐 美

- Banz, George(1970), *Elements of Urban form* (McGraw-Hill).
- Barnard, Frederick M.(1978), "Culture and Civilization in Modern Times,"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 Vol. I., pp.613-614.
- Doxiadis, C.A.(1974), *Anthropopolis: City for Human Development* (W.W. Norton).
- Gans, Herbert J. (1974),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aste* (Basic Book).
- Gamst, Frederick C. and Edward Norbeck (1976) (eds.), *Ideas of Culture: Sources and Uses* (Holt, Rinehart and Winston).
- Handlin, Oscar and John Burchard (1963) (eds.), *The Historian and The City* (The MIT Press).
- Harris, Janet I. (1979), "Planning for the Arts," Franks. So, et al. (eds.), *The Practice of Local Government Planning*, ICMA.
- Hwang, Keewon (1985), "Agenda for the Enculturation of the Urban Environment of Local Cities: The Korean Case,"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Vol. 16, pp. 88-108.
- Keesing, Felix M. (1958), *Cultural Anthropology: The Science of Custom* (Holt, Rinehart and Winston).
- Meinig, D.W. (1979) (ed.),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Oxford Univ. Press).

-
- Mulcahy, Kevin V. and C. Richard Swaim (1982) (eds.), *Public Policy and the Arts* (Westview Press).
 - Maslow, A.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ow).
 - Mumford, Lewis (1938), *The Culture of Cities* (Harcourt, Brace & Co.).
 - Sennett, Richard(1969), *Classic Essays on the Culture of Cities* (Meredith Corp.).
 - Sorokin, Pitirim A. (1959), *Social and Cultural Mobility* (The Free Press).